

“ 내가 남긴 인생작품 ”

■ 이종윤 원로목사

일 년 동안 농부들이 땅 흘려 지은 농사가 가을에 가서 결실이 잘 되었을 때는 풍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흉작이라고 한다. 풍작은 못되지만 흉작을 면했을 경우에는 평년작이라고 한다. 문학가나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을 걸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졸작이라 한다. 걸작까지는 못되지만 졸작은 면했을 때는 가작이라고들 한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남기고 가는 일생도 하나의 작품과 같다. 모세나 바울같이 살 수 있다면 걸작 인생일 것이고, 아합이나 가롯유다같이 살고 만다면 실패작일 것이다.

2012년의 365장의 백지 위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림을 그려 놓았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걸작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평년작 인생은 남겨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하나님 면전에서 걸작 인생의 자국을 남기려고 몸부림쳐 왔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영광스러운 발자국을 남겼노라고 자처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흔히 지난날의 영화에 나약한 향수를 느끼기 쉽다. 심지어 별것 아닌 과거사까지도 꿈속의 유토피아처럼 미화시켜 거기에 매달리려는 허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노스탈자는 새해 새 출발을 내딛는 마당에서 백번 해로울 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 살면서도 이미 다 허물어진 지난날 옛 예루살렘의 영화에 연연하며 현재의 조건을 타개할 야망을 갖지 못했다. 이미 가버린 옛날의 영화에 허황된 긍지를 고집하여 그들은 새 땅 바벨론의 거민들과 섞이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다. 지난해의 조그마한 성공과 자랑만을 되씹고 있다면 그런 것은 삶의 전진보다는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과거와 함께 묻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약한 향수는 새 출발의 결단을 마비시키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달리듯 과거의 실패에 얽매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그것을 삭이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지난해에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의 한파로 인해 실직 파산 부도와 같은 아픔을 안고 도덕적 붕괴와 사회질서의 파괴 속에서 참담한 굴욕과 절망 때문에 두고두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차별 학살을 당했고 부녀들은 적군에게 끌려가 능욕을 당했다. 거리는 황폐해졌고 나라의 임금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하나님의 성전은 쑥밭이 되고 귀족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와 슬픔으로 육된 과거, 그 치욕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 일을 생각지 말라 하신다. 그 모든 실패와 허물을 과감하게 과거와 함께 묻어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 출발을 시작하라 하신다.

2012년은 영원히 역사의 과거로 지나갔다. 그 보잘것없는 성공과 자랑, 그 숏한 실패와 허물은 우리 손을 이미 떠나 하나님의 책에 지울 수 없는 심판의 자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의 영육간에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러나 망각하지는 말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거친 광야에 길이 나고 황량한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목표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계속 가야 할 것이다. 그때에 옛것은 의미와 가치를 갖고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49호] 2012년 12월 29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예배와 함께 병행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이전처럼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c/서울교회공식유튜브>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서창원 목사님의 설교로 18일부터 시작된 흥해작전 새벽기도회가 25일까지 진행되오니 새벽 5시부터 주력교구로 배정된 성도들은 직접 교회에서, 다른 교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시작 5분 전부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도 각 처소에서 코로나19 안정과 교회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앞에 놓여진 흥해를 넉넉히 건널 수 있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흥해작전 본부 드림

*2020흥해작전 공동기도제목 :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RS_PCARD.jpg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역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지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종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사형정(러시아), 허창범(현대순(일본), 김낙형·오정-네케나,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론),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비샤, 알로롱, 비사부(뽀도, 보다소프, 린롬, 수리존(방글라데시) / 강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카르)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

■ 고전 2:9-16

인간의 타락 이래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충돌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시대가 변해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의 다툼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에 승자의 손이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두 영의 거대한 싸움 사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분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1. 마귀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소원이나?

성도라면 이 문제에 답을 내리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마귀를 가리킴과 동시에 세상의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닙니다. 자신의 악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거나 때로는 의의 일군으로 변장하여 일합니다. 마귀는 시대마다 과상한 시대정신을 낳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지성주의, 쾌락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저지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서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배회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시대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이 세상의 영은 홀모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소원성취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온몸을 던지겠습니까?

2. 하나님의 영의 소원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위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므로써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세상에 다시 보내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이기 시작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영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10절)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2천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맺는 말

여러분은 마귀의 소원성취에 기꺼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단호하게 가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선물을 즐겨워하십시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세상의 영의 소원을 막는 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영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적극적인 협력자 내지 기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영의 다툼에서 주님 편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진리를 위하여 강고 담대하게 힘써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IV 오후 4시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렘 23: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3(시2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9(3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2:14-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461(51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8:1-2 인 도 자
 찬 송 70(79)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창 16:15-17:8 인 도 자
 설 교 ...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 인터넷 영상
 찬 송 299(418)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22일(월) - 25일(목)

오전 5시 오르간 / 피아니스트: 이수정 차유지 김윤지 안효주

설 교 서창원 목사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6월26일(금) - 조원영 목사

6월27일(토) - 장석남 목사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말 은 이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2-2, 4-3, 5-3, 16-4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4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45명	334명	1,574명	3,107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6/1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14일	헌 금	27,296,400	
	교회학교운영비		1,693,250
	성 레 비		7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57,400
	차량유지비		109,800
	잡 비		239,400
	식당운영비		336,860
	합 계	27,296,400	2,816,71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